

이제는 갑각류, 육류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압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세 플라스틱이 채소류와 과일류까지 차지하며 더 높아진 범위를 자랑했습니다. 또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 몸에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우선 해양 생물을 조사했을 때 가장 큰 양의 미세 플라스틱을 배출한 음식의 정체는 바로 굴이었습니다. 영국 혈요크 의과대 연구팀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된 50여개의 연구를 검토해 어류 및 갑각류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 수준을 조사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환경보건전문 저널 12월호에 게재되었기도 합니다. 분석 결과, 미세플라스틱의 검출량은 연체동물 1~10.5 MPs/g, 갑각류 0.1~8.6 MPs/g, 어류 0~2.9 MPs/g으로 홍합이나 굴, 가리비 등 연체동물에서 가장 많은 양이 검출되었습니다. (MPs/g는 1g에 들어 있는 미세플라스틱 양을 말합니다.) 그다음은 육상음식입니다.미국 환경보호단체 오션 컨서버시(Ocean Conservancy)와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연구진은 해산물 뿐만 아니라 육류, 식물성 단백질 등 단백질식품 전반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된다고 국제학술지 '환경오염(Environmental Pollution)'에 발표했습니다. 연구진들은 식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육류와 두부, 대체육 등 식물성 단백질식품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도를 규명하기 위해 단백질이 함유된 해산물,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두부, 대체육 등 16가지 식품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분석 대상 모든 식품에서 평균 1mm 크기의 플라스틱이 검출됐을 뿐 아니라, 각 샘플의 88%에서 플라스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기와 두부는 이미 미세플라스틱이 안에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일과 채소를 보겠습니다.이탈리아 카타니아대 연구진이 최근 국제학술지 '환경 연구'(Environmental Research)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즐겨 먹는 과일과 채소도 높은 수준의 플라스틱 오염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흡수된 뒤 체관, 목관 등 식물 내 물질이동 통로를 통해 실 줄기와 잎, 열매로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미세플라스틱 입자가 식물 뿌리의 미세한 구멍을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과학자들의 기존 주장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진이 수집한 표본을 분석한 결과, 10마이크로미터 미만의 미세플라스틱 입자가 1그램당 최소 5만2050개(상추)에서 최다 22만3천개(사과)까지 검출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채소보다 과일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더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연구진은 과일 나무가 채소에 비해 나이도 많고 뿌리도 큰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채소에선 당근이, 과일에선 사과가 미세플라스틱 검출량이 가장 많았습니다.